

“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입니다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옛 본성 즉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듭난 사람이다. 기질상 노함과 분을 제거하고, 언어상 훼방과 욕설과 거짓말을 끊어 버리고, 원리상 죄의 몸은 죽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아(自我)를 가리킨다.

새 창조함을 입은 사람은 죄 문제에서 풀려나 도덕적인 변화를 경험한 내면적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에서도 새롭게 변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인종적 차별이 없고 헬라파나 무할레파 즉 종교적 구별이 없고 야만인 스쿠디아인이나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인을 구분치 않는다. 종이나 자유인 즉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로 인간을 나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셨다. 심지어 천국에서는 성정도 없다 한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유일한 표지는 인종, 종교, 문화, 경제, 성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에 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곧 만유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본질상 모든 것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곧 거룩함, 성결함, 순전함, 영원함 진실로 그 분이 모든 것의 전부이시고 그분을 소유한 각 개인도 그렇다. 이 보배같은 주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독자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다 하지 않았다. 새사람으로 새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다고 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약간은 인정하나 크게 인정하지 않는 이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 하지만 그분이 전부가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한 이로 보기엔 어렵다. 칭의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기 의로 덮으신다. 성화나 견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도 증보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없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했다. 우리에게 대체사장 보혜사 · 변호인이 필요 하듯 그리스도는 우리의 증보자로 만유시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 불같은 화살을 쏘고 죽이려 덤벼드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시오 감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을 정복하신 우리의 만유시다. 세상과 싸울 때도, 시험이 와도, 가난과 질병이 덮쳐도,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가 와도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만유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채우시고 도우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차별을 넘어 만유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도, 우리와 우리 원수 사이에서도 만유이시며 우리 자신 안에서도 만유이시다.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리인으로 만유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속자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만유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소망을 둘 분이 있는가?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통로로 보여 주신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보증이시고 만유의 총체시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시간과 영원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선물로 주셨다. 과거의 죄는 지워 버리고 현재의 필요는 채워 주시고 미래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필요의 만유시오, 바라는 것의 만유시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의 만유시다.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함을 나타낸다. 세상에는 좋은 약은 많이 있지만 만병통치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 안전, 신성, 평화, 풍성, 아름다움, 치유, 도움, 위로, 정복, 생명, 승리, 영생이시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면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제국의 황제보다 부요한 자요, 그 분을 의심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격이 되었다고 두려워 말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의 만유이시니 그분의 공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사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1497호] 2016년 3월 19일에서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장 기쁜 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만큼은 그동안 온라인으로 드렸던 분들도 특별히 어렵지 않은 한 교회에서의 예배에 참석하여 부활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함께 반갑게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오후 찬양예배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부활절 감사 특별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 부활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일 1,2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영,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는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고, 중고등부는 오랜만에 교회에서의 주일 1부 예배에 참여합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404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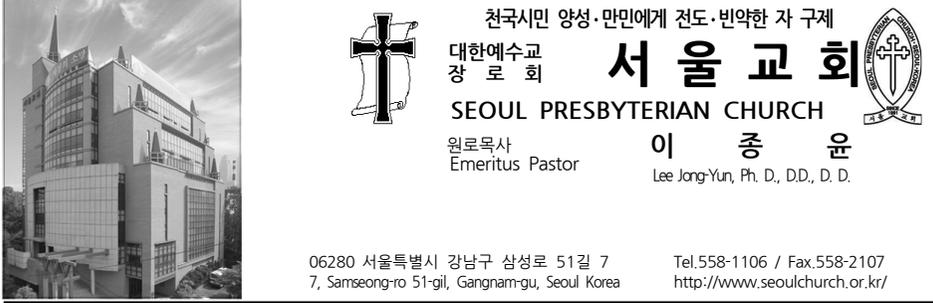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교육전도사 김은숙 양하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경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하·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펠로토바료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예수와 빌라도의 권세 ”

■ 요 19:6-16

모든 인간은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칭찬과 존경을 받는가 하면 수차와 낭패를 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권좌에 앉아 있었던 빌라도가 언급한 권세와 그에 답하는 예수님의 권세는 그 활용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1. 모든 권세는 위에서 주신 것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10절)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랴”라고 답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빌라도의 권세는 위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빌라도가 받은 그 권세가 결국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해칠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법리와 상식에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해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력을 사용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는 그에 미치는 영향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크나큰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 사용함에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나라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벧전 2:1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밑에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그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게 함이다.’(WCF 23:1).

빌라도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세를 천후의 한을 남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두 번의 경고를 받았고, 충분히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판단이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2. 살리는 권세는 자기희생을 통해서 성사 된다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인물로 고백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고백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죽일 권세와 살릴 권세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판단은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일요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과 같은 편파적이고 정치적이고 자기 권익 중심의 판결을 하는 법이 없으며, 그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고 그의 판결은 언제나 순결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불의한 재판을 하는 빌라도의 권세에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그를 가뒀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을 비워 희생하셨으므로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참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세가 가져온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권세 또는 권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박해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하여 가고자 하는 길에는 자기희생이 뒤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맺는 말

우리 앞에는 빌라도의 길,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 공동체의 선과 유익을 위한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처럼 자기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전재홍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요 11:25-2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4(부활절2)...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59(149)...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행 5:29-3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부활절감사헌금,금식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서정원 목사
 * 찬 송 Hymn162(151)...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부활절 감사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롬 6:10-11 인 도 자
 찬 송 165(155) 다 합 께
 기 도 오승민 집사
 성 경 골 3: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 설 교 자
 부활절감사찬양 가브리엘찬양대
 * 찬 송 171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기 도 I부: 유묘중 권사 II부: 김정열 권사
 성 경 미가 6: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화2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minster 홀

교회소식

알림

- 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 세례 신청 마감 / 4월 세례식이 4월 18일(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4월 4일(주)
 세례 교육 4월 11일(주) 오후1시 506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4월 11일(주) 오후2시 506호에서 있습니다.

※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문의 세례교육부: 010-3175-5550)

강 려

1. 故 박수근 성도(12교구 박현조 집사의 부친, 임영여 집사의 시부) / 4월1일(목) 별세, 3일(토)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315명	387명	1,702명	403명	2,737명

성내기를 더디하라

회개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성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본다. 허욕을 부리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법을 무시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능해서 혼란을 초래했으면 회개하고 새출발을 할 것이지 성낼 일이 아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다고 함부로 원망하고 성을 내는 경우도 있다. 제사장들의 음모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가 포박되고 십자가에 못박힌 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되어진 일인 줄 뉘 알았으랴. 그 큰 뜻을 모르는 베드로가 억울하다고 칼을 휘두르면서 성을 낸 것은 부질없는 실수였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임을 알자.

감사해야 할 일에 성을 내는 것도 잘못이다. 하나님의 관용과 이유의 형통을 못마땅히 여기거나 내 뜻대로 안된다고 성을 내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주님, 우리에게 쉽게 성내는 마음보다 회개와 인내와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련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는 부활절 감사 찬양예배로 드리며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오승민 집사, 지휘: 백경화 권사)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에루살렘				특 별 찬 양			
수요 I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